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현황*

이정원¹⁾

이윤진²⁾

요약

본고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이하,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를 고찰한 연구이다. 총 709 사례가 표집된 미이용 아동(영아 302명, 유아 407명)의 가정은 대부분 핵가족 형태로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직접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부모 모두 대졸이상의 학력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 709명 아동 중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경험 아동은 14.4%(102명)로 많지 않았고, 이들의 최초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기는 평균 29.2개월이며 만 3세 이상부터 기관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미이용 아동 중 336 사례가 사교육중 개별교육 이용 경험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현재 1개 이상(평균 1.63개)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고소득 가구일수록 개별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며(평균 2.16개), 개별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7.6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이용 가정이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일시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양육비지원, 사교육비 지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사교육

* 이 글은 이정원·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1)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 2)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I. 서론

아동은 미래 국가 발전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현재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아동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취학 연령에 이르러 일률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며, 이로 인해 동일 연령대의 취학 아동들은 일정부분 비슷한 형태의 생활을 공유하게 된다. 이에 반해 취학 전 아동은 겪게 되는 경험의 차이가 클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향후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대상이다.

확대가족(대가족) 제도 하에서 육아가 가정의 몫이었던 시기,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포함한 육아는 개별적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 변동 속에서 초래된 변화는 영유아 시기의 육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게 되었다. 부모·자녀의 2세대 가족원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족의 보호 및 교육 기능에만 육아를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보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적게 낳아 최고로 키우고자 하는 시대적 트렌드는(심성경·성원경, 2008) 부모의 육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전과는 다른 욕구를 생성하고 있다. 즉, 핵가족중심 가족구조의 정착, 여성 경제활동의 지속적 증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 등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특히 취학 전 아동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쏠리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의 육아를(보육·교육을 포함하여) 경험하며 자라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대표적인 육아지원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아동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도 현재 영유아 인구 274만4,597명 중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약 62%에 해당하는 223만4,541명이다. 만 0~2세 영아의 경우 영아인구 133만

1,110명 중 약 38%가, 만 3~5세 유아 141만3,487명 중 약 80.3%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영유아 전체 평균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율은 평균 62%정도이다. 연령별로 격차가 크지만,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약 4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상당수 나머지 영유아 인구의 육아 실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은 육아지원 정책마련에 있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함을 뜻한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육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로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실태 조사」와 서문희 외에 의해 2007년도에 실시한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2004년 전국 보육시설과 유치원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 내용 중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를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연령별로는 영아의 경우 ‘어려서’ 84.4% 유아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45.7%로 가장 많이 미이용 이유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어려서’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모두 가장 많았으나 읍·면으로 내려갈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 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비용부담’을, 소득이 높을수록 ‘어려서’와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응답하였다.

2007년도의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는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업소를 통해 공급되는 직업인으로서의 ‘베이비시터’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공급실태,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은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시 말해서 이들 영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대신, 베이비시터가 양육을 하는 경우로서, 이용 요금이 한 달 평균 90만원을 상회하므로 주로 고소득·고학력의 맞벌이 가구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정하여 실시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미이용 아동의 육아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환경의 특징은 어떠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 과거 이용 경험여부, 현재 미이용 이유, 사교육 이용 현황 등은 어떠한지를 고찰하고, 미이용 가정에서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미비하였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만 집중되었던 정책적 관심과 육아 지원이 미이용 아동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근거로서 실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한 주된 방법이 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version 14.0을 활용한 빈도 분석 등 기술 통계 및 교차 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을 거쳤다. 이밖에 본 연구의 주된 모집단과 조사대상, 설문내용 및 설문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 중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조사의 이론적 모집단은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친인척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부모이며, 이들이 아동 자신의 특성이나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가구 특성, 부모 특성 등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설문내용

본 연구에서 이용할 질문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미이용 가구의 육아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문항들이다. 즉, 가구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 특성(출생순위, 성별, 연령 등), 현재 육아의 유형,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성(선택 이유, 최초 이용 시기, 이용비용, 시간 등)이 포함된다. 둘째, 미이용 이유, 현재 이용 교육·보육 서비스 및 기관 이용 이유,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의 만족도,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자의 중단 이유 등 특히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셋째,

현재 이용 교육·보육 서비스 및 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애로사항,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 등 유치원·보육시설의 개선과 미이용 가구 지원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문항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모 간담회와 문헌 연구,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3. 표본추출

영유아 인구를 고려한 지역별·연령별 사례 할당을 하여, 최종적으로 영아 가구 302가구, 유아 가구 407가구가 조사되었다.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낮은 0세를 제외한 만 1~2세만을 포함하였다. 조사지역은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6개 광역시로 제한하였다. 이는 최종 목표로 하는 표본수가 많지 않고, 기존 연구에서 놓여준 지역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도시 지역에서 추출하는 것이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접하는데 더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만 1~2세의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지역별·연령별 인구수에 기초하여 700사례를 비례 할당하였고, 지역별로 극히 소수의 사례만이 할당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역별·연령별로 10사례씩을 할당하고 나머지 사례수를 비례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본할당을 실시하였다. 최초 목표 할당 사례수는 영아 가구 284 사례, 유아 가구 416 사례였으나, 최종 사례는 영아 302가구, 유아 407가구가 집계되었다.

설문내용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각 가구의 미취학 자녀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아동으로 지정하여 응답자가 그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미이용 아동의 가정 환경

본 연구의 미이용 아동 총 709명 중에서 영아는 302명, 유아 407명으로 유아가 좀 더 많았으며 만 3세 유아가 36.2%로 본 조사에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장애나 질병

이 없는 건강한 아이들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환경은 다음과 같다.

<표 1> 미이용 가구의 특징

단위: %(명)

가구특성	구분	비율(수)
가구유형	부부+자녀	95.3(676)
	한부모+자녀	0.7(5)
	3대이상가족	3.8(27)
	(한)조부모+자녀	0.1(1)
	계(수)	100.0(709)
가족 수 ¹⁾	3인 가구<자녀 1>	35.3(238)
	4인 가구<자녀수 2>	55.9(376)
	5인 가구이상<자녀수 3 이상>	8.9(61)
	계(수)	100.0(675)
결혼이민자여부	부	
	그렇다	-
	아니다	99.7(707)
	해당없음	0.3(2)
계(수)	100.0(709)	
모	그렇다	0.8(6)
	아니다	99.0(702)
	해당없음	0.2(1)
	계(수)	100.0(709)

주: 1)부부+자녀의 핵가족 유형만을 대상으로 함.

우선, 미이용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2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95.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조부모+부모+자녀의 3대 가족유형이 3.8%였다. 한부모 가정(한부모+자녀)이나 조손가정(조부모+자녀)은 본 연구에서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도 극히 적었다.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유형 675 가구의 가족 수는 부모와 2인 자녀로 구성된 총 4인가구가 전체의 과반이 넘는 55.9%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1인을 둔 3인 가족이 35.3%, 자녀 3인 이상을 둔 가구가 8.9%순이었다(표 1 참조).

미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을 보면, 월평균 소득 201~300만원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하가 25.4%, 301~400만원이 22.1% 순이었다³⁾.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총 709가구 중 9가구로 0.3%에 불과했다(표 2 참조).

3)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4세 이하 201만2440원, 25~29세 263만8500원, 30~34세 297만2326원, 35세~39세 319만767만원, 40~44세 341만7677원(이하 연령 생략)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8년 3분기).

<표 2> 미이용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명), 만원

가구특성	구분	비율(수)	평균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25.4(180)	295.43*
	201~300만원	42.3(300)	
	301~400만원	22.1(157)	
	401만원이상	7.5(53)	
	모름/무응답	2.7(19)	
	계(수)	100.0(709)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그렇다	0.3(9)	
	아니다	99.7(700)	
	계(수)	100.0(709)	

주: 모름/무응답 제외한 수치임.

<표 3> 미이용 부모의 연령 및 학력

단위: %(명)

부모특성	구분	부	모
연령	20대	3.5(25)	13.1(93)
	30대	77.3(548)	80.8(567)
	40대	18.1(128)	6.6(47)
	해당없음	0.3(2)	0.1(1)
	무응답	0.8(6)	0.1(1)
	계(수)	100.0(709)	100.0(709)
연령평균(세)	연령평균(세)	37.1	33.8
학력	중졸이하	0.8(6)	2.0(14)
	고졸	27.8(197)	36.4(258)
	대졸	68.1(483)	60.5(429)
	대학원이상	3.0(21)	1.0(7)
	해당없음	0.3(2)	0.1(1)
	계(수)	100.0(709)	100.0(709)

미이용 가정의 부모 모두 30대가 전체 연령대의 77.3%, 80.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 37.1세, 33.8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대졸이 각각 60.5%, 68.1%로 절반이상을 차지해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 36.4%, 아버지 27.8%가 고졸이었다(표 3 참조).

<표 4>는 미이용 아동의 부모 직업을 보여준다. 전업주부가 89.3%로 미이용 아동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비취업이다.⁴⁾ 이처럼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4)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라는 항목에서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98.7%였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전업주부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의 어머니에 미취업모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은 유치원·보육시설을 주로 취업 모들이 대리양육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어머니 직업은 사무기술직으로 5.4%를 차지했다. 아버지는 사무기술직이 50.6%로 절반정도이며 다음으로는 자영업 20.7%, 기능숙련공 10.7% 순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맞벌이 가정이 많으며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대리양육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01만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가구의 취업모의 직업은 사무기술직이 18.5%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자유직 7.4% 기능숙련공 5.6% 순이었다.

<표 4> 미이용 부모의 직업분포

단위: %

구분	농어업 임업등	자영업	판매 서비스	기능 숙련공	사무 기술직	일반직 업직	전문 자유직	경영 관리직	전업 주부	기타	계(수)
모											
전체	0.1	1.8	1.3	0.7	5.4	-	0.8	-	89.3	0.5	100.0(709)
200만원이하	-	0.6	0.6	-	1.1	-	0.6	-	96.6	0.6	100.0(180)
201~300만원	-	1.0	2.0	0.3	2.3	-	0.3	-	93.7	0.3	100.0(300)
301~400만원	-	5.1	1.3	0.6	11.5	-	-	-	81.5	-	100.0(157)
401만원이상	1.9	-	-	5.6	18.5	-	7.4	-	64.8	1.9	100.0(53)
모름/무응답	-	5.3	-	-	5.3	-	-	-	84.2	5.3	100.0(19)
부											
전체	0.8	20.7	6.2	10.7	50.6	2.5	5.5	1.1	-	1.7	100.0(709)
200만원이하	0.6	16.8	10.1	20.7	41.3	4.5	1.7	-	-	-	100.0(180)
201~300만원	1.0	17.0	6.7	8.3	59.3	2.3	4.0	1.0	-	-	100.0(300)
301~400만원	0.6	27.4	3.2	7.0	51.0	1.3	8.9	0.6	-	-	100.0(157)
401만원이상	1.9	35.2	1.9	3.7	31.5	-	16.7	7.4	-	-	100.0(53)
모름/무응답	-	21.1	-	5.3	52.6	5.3	5.3	-	-	-	100.0(19)

주: 기타는 무직, 해당없음, 무응답을 합산한 수치임.

2. 미이용 아동의 교육·보육 실태

현재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의 교육·보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및 현재의 사교육 이용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

709명 중 과거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4%인 102명으로 비중이 매우 적었다.

가.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영유아별로는 영아는 3.6%만이, 유아는 22.4%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은 비율이 높아져, 5세의 경우 46.8%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전·울산·경기 지역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비교적 높았다(표 5 참조).

<표 5>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범주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전체	$\chi^2(df)$
전체		14.4(102)	85.6(607)	100.0(709)	
영유아	영아	3.6(11)	96.4(291)	100.0(302)	49.306(1)***
	유아	22.4(91)	77.6(316)	100.0(407)	
연령	1세	1.1(2)	98.9(181)	100.0(183)	99.994(4)***
	2세	7.6(9)	92.4(110)	100.0(119)	
	3세	13.6(35)	86.4(222)	100.0(257)	
	4세	33.0(34)	67.0(69)	100.0(103)	
	5세	46.8(22)	53.2(25)	100.0(47)	
지역	서울	13.7(22)	86.3(139)	100.0(161)	16.828(7)*
	부산	6.2(4)	93.8(61)	100.0(65)	
	대구	5.4(3)	94.6(53)	100.0(56)	
	인천	7.7(5)	92.3(60)	100.0(65)	
	광주	13.3(6)	86.7(39)	100.0(45)	
	대전	17.8(8)	82.2(37)	100.0(45)	
	울산	21.1(8)	78.9(30)	100.0(38)	
경기	19.7(46)	80.3(188)	100.0(234)		

주: * p<0.05, *** P< 0.001.

이처럼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과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중 83.3%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중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보다는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사례가 많았고, 영아의 경우도 그러했다. 유치원 이용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표 6 참조).

<표 6>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이용 기관의 종류

단위: %(명)

범주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계(수)
			어린이집	놀이방	소계	
전체		16.7(17)	56.9(58)	26.5(27)	83.3(85)	100.0(102)
영유아	영아	-	63.6(7)	36.4(4)	100.0(11)	100.0(11)
	유아	18.7(17)	56.0(51)	25.3(23)	81.3(74)	100.0(91)
연령	1세	-	-	100.0(2)	100.0(2)	100.0(2)
	2세	-	77.8(7)	22.2(2)	100.0(9)	100.0(9)
	3세	11.4(4)	51.4(18)	37.1(13)	88.6(31)	100.0(35)
	4세	14.7(5)	61.8(21)	23.5(8)	85.3(29)	100.0(34)
	5세	36.4(8)	54.5(12)	9.1(2)	63.6(14)	100.0(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또한, 유치원·보육시설을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만 3세 이상(36개월)에 최초로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39.2%), 만 2세 미만부터 이용을 시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평균적으로는 아동 월령 29.2개월에 유치원·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유치원·보육시설의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11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개월 이상	계(수)	평균
7.8(8)	21.6(22)	31.4(32)	39.2(40)	100.0(102)	29.2개월

유치원·보육시설을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한 기간은 대다수가 1년 미만이었으며, 1년 이상 이용한 경우는 16.7%에 불과하였다. 3개월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만 이용했던 경우도 26.5%로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과거에 이용 경험이 있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만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표 8 참조).

<표 8>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이용 기간

단위: %(명), 개월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3개월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6.5(27)	26.5(27)	30.4(31)	16.7(17)	100.0(102)	10.02
영아	45.5(5)	27.3(3)	27.3(3)	-	100.0(11)	4.82
유아	24.2(22)	26.2(24)	30.8(28)	18.7(17)	100.0(91)	10.65

영아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단기로 이용한 경우가 전체 이용자의 약 절반에 가깝고 평균 4.82개월로 유아보다 이용 기간이 더욱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아동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영아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27.3%), 유아는 영아기본 보조금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13.2%),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보육료 지원 경험도 유사하게 나타났다(11.0%). 이용 아동 102명중 한 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았던 아동은 총 22명으로 21.5%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영유아의 현재 연령과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혜택의 종류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표 9>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시 비용지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지원여부			계(수)
		지원받은 적 있음	지원받은 적 없음	모르겠음	
영아기본 보조금	영아	18.2(2)	81.8(9)	-	100.0(11)
	유아	13.2(12)	81.3(74)	5.5(5)	100.0(91)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유아	7.7(7)	90.1(82)	2.2(2)	100.0(91)
저소득층 자녀 교육·보육비 지원	영아	27.3(3)	72.7(8)	-	100.0(11)
	유아	11.0(10)	86.8(79)	2.2(2)	100.0(91)
셋째아 보육료 지원	영아	-	100.0(11)	-	100.0(11)
	유아	4.4(4)	92.3(84)	3.3(3)	100.0(91)

다음으로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에 느꼈던 만족도에 관해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았을 때, 15가지 항목에서의 평균 만족도는 3.43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만족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등 만족했던 경우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40%를 넘었고, 특히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정서발달’을 제외하고는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 60%에 가까운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언어 발달’에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아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할 시 교사나 타 아동과의 상호작용,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였던 ‘집과의 거리’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대 아동 비율’, ‘환경·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비용’ 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원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교육·보육 환경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현재의 미이용의 사유가 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시 만족도

단위: %(명), 점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교육·보육 프로그램	3.9	41.2	42.2	9.8	2.9	100.0(102)	3.23
교사 대 아동 비율	2.0	38.2	45.1	12.7	2.0	100.0(102)	3.25
환경·시설	2.9	37.3	46.1	10.8	2.9	100.0(102)	3.26
비용	2.9	21.6	37.3	31.4	38.2	100.0(102)	2.82
원장/교사의 자질(학력)	3.9	40.2	42.2	12.7	1.0	100.0(102)	3.33
운영시간	4.9	42.2	36.3	15.7	1.0	100.0(102)	3.34
집과의 거리	15.7	56.9	18.6	7.8	1.0	100.0(102)	3.78
방학기간	4.9	38.2	41.2	14.7	1.0	100.0(102)	3.31
아이의 정서발달	7.8	41.2	39.2	10.8	1.0	100.0(102)	3.44
아이의 인지(지능) 발달	8.8	52.0	32.4	6.9	.0	100.0(102)	3.63
아이의 신체 발달	8.8	52.0	36.3	2.9	.0	100.0(102)	3.67
아이의 사회성 발달	11.8	48.0	34.3	4.9	1.0	100.0(102)	3.65
아이의 언어 발달	10.8	55.9	26.5	6.9	.0	100.0(102)	3.71
안전·건강·영양 관리(급간식 등)	5.9	42.2	41.2	6.9	3.9	100.0(102)	3.39
가정과의 연계 정도(원활한 상담)	8.8	46.1	37.3	5.9	2.0	100.0(102)	3.54

나. 미이용 아동의 사교육(개별교육)의 이용 현황

709가구 미이용 아동들 중 336가구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개별교육⁵⁾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개별교육 경험이 있는 336 사례 중 지금 현재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 이

5) 본고에서 개별교육이란 낮시간의 이용시간이 유치원, 보육시설 또는 일반학원처럼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고, 주된 교육·보육의 장소와 주체는 가정과 어머니이면서 보완적 형태로 기관이나 학습지를 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번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또는 학습지 또는 교구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회 방문에 1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아동이 이용하는 사교육중 특히 빈도가 높은 ‘개별교육’의 측면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하는지, 한 달 총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개별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336사례 중 18사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현재에도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용 개수는 1개가 전체 51.5%로 가장 많았으며 3개 이상 개별교육을 한다는 비율은 4.2%에 그쳤다.

아동의 연령별로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영유아를 불문하고 1개 이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1개 이용율이 43.8%로 전체 대비 가장 낮게 나왔으며, 3개 이상 이용은 6.3%로 전체 대비 가장 높게 나왔다. 현재 이용하는 개별교육 개수는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아져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유·보 경험여부별로 경험자의 개별교육 개수가 평균 2.1개로 무경험 사례의 1.5개에 비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개별교육 개수가 가장 많아, 평균 각각 2.24, 1.65개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고, 울산과 광주의 개별교육 개수가 가장 적었다(표 11 참조).

<표 11> 현재 개별교육 개수

구분						단위: %(명), 개	
	없다	1개	2개	3개 이상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5.4(18)	51.5(173)	37.2(125)	4.2(14)	1.8(6)	100.0(336)	1.63
연령							
영아	4.3(5)	60.0(69)	32.2(37)	1.7(2)	1.7(2)	100.0(115)	1.55
유아	5.9(13)	47.1(104)	39.8(88)	5.4(12)	1.8(4)	100.0(221)	1.67
유·보 경험여부							
경험 유	7.7(5)	38.5(25)	38.5(25)	12.3(8)	3.1(2)	100.0(65)	2.1
경험 무	2.1(13)	24.4(148)	16.5(100)	1.0(6)	0.7(4)	100.0(271)	1.5
소득수준							
200만원이하	8.8(6)	55.9(39)	29.4(20)	2.9(2)	2.9(2)	100.0(68)	1.38
201~300만원	3.4(5)	52.7(78)	38.5(57)	4.1(6)	1.4(2)	100.0(148)	1.62
301~400만원	6.2(5)	48.1(39)	39.5(32)	4.9(4)	1.2(1)	100.0(81)	1.63
401만원이상	6.3(2)	43.8(13)	40.6(13)	6.3(2)	3.1(1)	100.0(32)	2.16
모름/무응답	-	57.1(3)	42.9(3)	-	-	100.0 (7)	1.57
지역							
서울	1.4(1)	43.8(32)	42.5(31)	9.6(7)	2.7(2)	100.0(73)	2.24
부산	-	45.9(17)	51.4(19)	2.7(1)	-	100.0(37)	1.65
대구	-	77.8(14)	22.2(4)	-	-	100.0(18)	1.33
인천	-	72.7(16)	22.7(5)	4.5(1)	-	100.0(22)	1.45
광주	16.7(2)	58.3(7)	25.0(3)	-	-	100.0(12)	1.08
대전	19.2(5)	46.2(12)	34.6(9)	-	-	100.0(26)	1.23
울산	30.4(7)	39.1(9)	30.4(7)	-	-	100.0(23)	1.09
경기	2.4(3)	52.8(66)	37.6(47)	4.0(5)	3.2(4)	100.0(125)	1.5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다음으로 개별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영유아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여부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지출비용은 7.59만원이며 6~1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3만원 이하가 28.4%로 다른 비용구간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 구간인 6~10만원이 27.9%를 차지해 3만원 이하 지출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이 구간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유아가 영아보다, 과거 유·보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별교육 월평균 지출액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12 참조).

<표 12> 현재 개별교육에 드는 월평균 지출액

단위: %(명), 만원

구분	3만원 이하	4~5만원	6~10만원	11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수)	χ^2 (df)	평균
전체	24.1(81)	22.0(74)	30.4(102)	16.1(54)	7.4(25)	100.0(336)		7.59
연령							1.720 (4)	
영아	27.8(32)	20.9(24)	30.4(35)	14.8(17)	6.1(7)	100.0(115)		6.95
유아	22.2(49)	22.6(50)	30.3(67)	16.7(37)	8.1(18)	100.0(221)		7.94
유·보 이용여부							9.356 (4)	
경험 유	16.9(11)	13.8(9)	33.8(22)	24.6(16)	10.8(7)	100.0(65)		9.2
경험 무	25.8(70)	24.0(65)	29.5(80)	14.0(38)	6.6(18)	100.0(271)		7.2
소득수준								
200만원이하	28.4(20)	19.1(13)	27.9(20)	11.8(8)	11.8(8)	100.0(68)		6.93
201~300만원	23.6(35)	23.0(34)	33.1(49)	14.9(22)	5.4(8)	100.0(148)	-	7.24
301~400만원	19.8(16)	25.9(21)	27.2(22)	19.8(16)	7.2(6)	100.0(81)		8.05
401만원이상	21.9(7)	12.5(4)	37.5(11)	18.8(6)	9.4(3)	100.0(32)		9.17
모름/무응답	42.9(3)	28.6(2)	-	28.6(2)	-	100.0(7)		9.00
지역								
서울	26.0(19)	19.2(14)	32.9(24)	17.8(13)	4.1(3)	100.0(73)		7.86
부산	10.8(4)	35.1(13)	40.5(15)	13.5(5)	-	100.0(37)		7.30
대구	50.0(9)	16.7(3)	27.8(5)	5.6(1)	-	100.0(18)		6.22
인천	45.5(10)	22.7(5)	13.6(3)	18.2(4)	-	100.0(22)	-	6.77
광주	41.7(5)	-	33.3(4)	8.3(1)	16.7(2)	100.0(12)		6.20
대전	23.1(6)	11.5(3)	23.1(6)	23.1(6)	19.2(5)	100.0(26)		7.10
울산	21.7(5)	8.7(2)	21.7(5)	17.4(4)	30.4(7)	100.0(23)		8.44
경기	18.4(23)	27.2(34)	32.0(40)	16.0(20)	6.4(8)	100.0(125)		7.99

주: 소득수준별, 지역별 개별교육 지출은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한편 월평균 개별교육 지출 비용과 소득수준의 상관관계는 평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비례관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자녀의 개별교육비용이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개별교육에 드는 월평균 지출액이 8.4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9천원 가량 더 지출하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의 경우 개별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적었다.

미이용 아동의 개별교육 이용과 관련해 <표 11>과 <표 12>에서는 과거 유·보 경험이 있는 경우 개별교육의 개수나 지출액 등 사교육 이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유·보 경험이 있는 아동의 연령이 유·보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거 유·보 경험 사례들은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바 이에 대한 불만으로 후에 개별 교육과 같은 사교육 이용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개별교육을 하는 이유

미이용 아동이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로는 ‘아이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가 6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14.3%)였다. 이 같은 순위는 연령별, 주양육자별, 과거 유·보 경험여부별, 소득수준별로 봤을 때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 다만, 주양육자별로 볼 때 부모 이외의 자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아이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의 응답비율이 전체를 상회하는 7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자녀를 타인에게 대리 양육시키고 있는 경우 부모 자신이 돌보는 경우에 비해 아이 발달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를 보충할만한 다른 서비스를 더 찾게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아보다 유아에서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에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를 통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가까울수록 개별교육 등 사교육 이용은 초등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목적을 많이 띠게 됨을 엿볼 수 있다(표 13 참조).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중 47.4%는 주로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개별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23.6개월 영아기에 개별교육을 시작한다. 또한 현재 평균 1.63개를 동시에 이용하며, 한 달 평균 7.59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3>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 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하고 싫어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기타	계(수)
전체	60.4(203)	14.3(48)	7.7(26)	6.3(21)	5.7(19)	4.8(16)	0.9(2)	100.0(336)
연령								
영아	66.1(76)	18.3(21)	5.2(6)	1.7(2)	0.9(1)	7.8(9)	-	100.0(115)
유아	57.5(127)	12.2(27)	9.0(20)	8.6(19)	8.1(18)	3.2(7)	1.4(2)	100.0(221)
주양육자								
부모	60.3(191)	14.2(45)	8.2(26)	6.0(19)	5.7(18)	4.7(15)	0.9(2)	100.0(317)
부모외	70.6(12)	11.8(2)	-	11.8(2)	-	5.9(1)	-	100.0(17)
없음	-	50.0(1)	-	-	50.0(1)	-	-	100.0(2)
유·보 경험여부								
경험 유	55.4(36)	13.8(9)	7.7(5)	7.7(5)	13.8(9)	1.5(1)	-	100.0(65)
경험 무	61.6(167)	14.4(39)	7.7(21)	5.9(16)	3.7(10)	5.5(15)	1.1(3)	100.0(271)
소득계층								
200만원이하	57.4(40)	20.6(14)	4.4(3)	5.9(4)	5.9(4)	5.9(4)	-	100.0(68)
201~300만원	61.5(91)	12.8(19)	9.5(14)	4.1(6)	4.1(8)	5.4(8)	1.4(2)	100.0(148)
301~400만원	56.8(46)	16.0(13)	8.6(7)	9.9(8)	9.9(4)	2.5(2)	1.2	100.0(81)
401만원이상	62.5(19)	6.3(2)	6.3(2)	9.4(3)	9.4(3)	6.3(2)	-	100.0(32)
모름/무응답	100.0(7)	-	-	-	-	-	-	100.0(7)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2) 기타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수치임.

3.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이유

다음으로 과거에 유치원 혹은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경우, 이용의 이유를 살펴 보았다.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이유는 다양했으나,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1.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이 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영유아별로 이용 이유에 차이가 나타났는 바, 유아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와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 측면에서 기관 이용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반면, 영아는 ‘양육이 힘들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에 대부분의 응답이 집중돼 부모 입장에서의 기관 이용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영유아 별로 이용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4 참조).

<표 14>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명)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특기(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	비용이 저렴해서	기타	계(수)
전체	24.5(25)	31.4(32)	2.0(2)	24.5(25)	15.7(16)	1.0(1)	1.0(1)	100.0(102)
영아	27.3(3)	9.1(1)	.0	18.2(2)	45.5(5)	-	-	100.0(11)
유아	24.2(22)	34.1(31)	2.2(2)	25.3(23)	12.1(11)	1.1(1)	1.1(1)	100.0(9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다음으로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과반 수이상인 현재 자녀의 나이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의 경우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 두드러져,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유치원·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에 보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표 15 참조).

<표 15>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가 어려서	비용 부담	원하는 프로그램 미비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서	원장·교사 수준 불만족	집에서 멀어서	초등 학교 준비 미흡	기타	계(수)
전체	50.2(356)	25.1(178)	7.2(51)	5.4(38)	3.9(28)	2.1(15)	1.4(10)	0.8(6)	3.9(27)	100.0(709)
유·보 경험여부										
경험 유	8.8(9)	33.3(34)	12.7(13)	21.6(22)	4.9(5)	3.9(4)	2.0(2)	3.9(4)	4.9(5)	100.0(102)
경험 무	57.2(347)	23.7(144)	6.3(38)	2.6(16)	3.8(23)	1.8(11)	1.3(8)	0.3(2)	1.2(7)	100.0(607)
연령										
영아	70.9(214)	13.9(42)	6.0(18)	2.6(8)	2.0(6)	2.3(7)	1.3(4)	.0	0.3(3)	100.0(302)
유아	34.9(142)	33.4(136)	8.1(33)	7.4(30)	5.4(22)	2.0(8)	1.5(6)	1.5(6)	3.1(24)	100.0(407)
$\chi^2(df)$	99.935(8)***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55.6(100)	29.4(53)	1.7(3)	2.8(5)	2.2(4)	2.8(5)	1.7(3)	1.1(2)	2.8(5)	100.0(180)
201~300만원	52.3(157)	27.3(82)	6.0(18)	5.0(15)	2.7(8)	1.0(3)	2.0(6)	0.7(2)	3.0(9)	100.0(300)
301~400만원	45.2(45.2)	21.0(33)	13.4(21)	8.3(13)	5.1(8)	2.5(4)	.0	0.6(1)	3.8(6)	100.0(157)
400만원 이상	38.9(34.0)	11.3(6)	15.1(8)	9.4(5)	13.2(7)	3.8(2)	.0	1.9(1)	11.3(6)	100.0(53)
모름/무응답	52.6(10)	21.1(4)	5.3(1)	.0	5.3(1)	5.3(1)	5.3(1)	.0	5.3(1)	100.0(19)

주: 유·보 경험여부별, 소득수준별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 p<0.001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불만 사항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비용 부담(25.1%)’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의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나 원장·교사 수준에 대한 불만,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불만 등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육·보육 환경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다. 이밖에 아동이 적응을 못해서라는 응답도 5.4%나 되었는바, 집단 교육·보육 활동의 경험을 시작할 때 아동에게 주어질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충격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4. 미이용 가정의 육아지원 요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필요할 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시설(30.7%)’이었다. 이밖에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13%가 응답해 일시보육을 포함해 전체의 43%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특별한 사유가 생겨 아이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비상시적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대상가구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였으며, 현재 대부분 학원 등 유치원·보육시설 외의 다른 기관들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지 등을 이용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양육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양육자의 갑작스런 불일 등으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을 맡기고 보호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16 참조).

이러한 비상시적 돌봄 서비스 외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외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의 개인 양육을 할 경우의 비용 지원, 문화센터·방문교육·학원 등을 이용할 때의 비용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주어지는 수당 등 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이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에도 ‘비용부담’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 기타 학원 이용 시에도 ‘비용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미이용 가정의 양육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6>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일시보육 시설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지원	문화센터, 방문교육, 학원 등 이용시 비용 지원	비상시 부를 수 있는 이돌보미 파견서비스	대리양육 이용시 비용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개선	가정 보육모 서비스 이용지원	기타 (육아 휴게소 설치)	계(수)
1순위	30.7(218)	20.9(148)	15.0(106)	13.0(92)	8.7(62)	5.6(40)	3.1(22)	2.9(21)	100.0(709)
1·2순위 (중복응답)	48.5(344)	34.6(245)	37.0(262)	25.8(183)	18.1(128)	13.5(96)	10.6(75)	11.4(77)	- (709)

IV. 요약 및 육아지원 정책방향

지금까지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709명의 육아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들 가정 어머니의 89.3%가 전업주부이고,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는 외벌이 가정으로 어머니가 자녀육아의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로는 ‘자녀가 아직 어려서’가 50.2%로 가장 많고 ‘비용부담’ 25.1%, 프로그램 미비 7.2% 순으로 응답하여, 20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런데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이 85.6%(607명)로 대다수 아동은 과거에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다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102명의 부모에게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비용부담’을 33.3%로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과거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례들은 ‘아이가 어려서’를 가장 주된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의 사유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번도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았던 경우와 이용해 본 적이 있지만 중단한 경우의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의 사유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아이가 어려서’ 유치원·보육시설을 지금까지 한번도 이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막상 이용하게 되었을 때

는 비용부담이나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로 이용을 중단하게 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향후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해 바라는 개선 사항으로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의 증설’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는데, 부모들이 공교육·공보육에 대한 신뢰와 요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유치원·보육시설의 의무교육·보육화, 무상교육·보육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79.7%가 의무교육·보육기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 증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개선사항은 ‘교육비·보육료 지원의 확대’로 그동안 교육비와 보육료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맞벌이 부부 등 자녀 교육비·보육료 부담이 크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치원·보육시설이 무상기관화할 시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92.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유치원 교육비와 보육시설 보육료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육아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시설(30.7%)’과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13%)’ 등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특별한 사유가 생겨 아이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비상시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육아지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영아기와 유아기를 구분해서 ‘다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시설중심의 지원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 영아는 발달단계상, 그리고 우리나라 양육의 정서상, 시설에서의 육아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내 육아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라 사료된다.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심의 현행 육아지원정책을 견지하면서 ‘국공립기관의 확충’, ‘비용지원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현황.

나정·서문희·이미화·김문정(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

석. 육아정책개발센터.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pp.23~43.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베이비시터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성경·성원경(2008). 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생애초기 교육의 문제점, 한국육아지원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7~73.

여성가족부(2007.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7. 6월말 기준). 보육통계.

정민자·김영주·박초아·이진숙·홍금자·박무성·이영주(2006).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현은강·공인숙·김영주·이완정(1997). 유아용 학습지의 현황 및 학습지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17(2), pp.213~228.

홍승아(2008).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선진화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31~148.

• 논문접수 2009년 11월 20일 / 수정본 접수 12월 24일 / 게재 승인 12월 28일

• 교신저자: 이윤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leeyunjin@kicce.re.kr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are of children not attending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Jeong won Lee

Yunjin Lee

This study looked at the actual conditions of care of children who don't use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The number of cases for this study is 709(children under 3 years old are 302 and children aged 3 or more are 407). The family types of almost all the cases are nuclear families and mostly, mothers take on the role of main carers for their children. Most parents in all cases graduated from university. There are not many children who have ever used kindergartens or child care centers. In other words, only 102 cases of all the cases(14.4%) used these childcare facilities in the past. They began to use these childcare facilities from 29.2 months old on average and mostly tended to begin using these facilities over 36 months old. 336 cases of all the cases have experienced private education and most of them still use more than 1 private education(1.63 on average). The richer they are, the more they use private education(2.16 on average) and the average cost for private education is ₩76,000.

In order of needs of families that don't use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temporary child care centers ranked first, support for child rearing expenses second and support for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ird.

Key words: children not attending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private education